

탄소법 통과, 앞으로 전복이 할 일

민간투자 유도 시행령 발굴 · 관련 연구기관 국가기관 승격 · 타 지역과 상생의 길 찾기 등 과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법'이 19대 국회 막차를 타고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복도 탄소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방안과 탄소산업이 국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의 노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탄소법 통과가 탄소산업 발전의 근간은 맞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탄소산업이 전복지역 또는 우리나라의 대표산업으로 급부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탄소법 통과 이후 도의 첫번째 과제는

실질적인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를 이끌어 구체적·체계적인 시행령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도는 새만금 사업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척사업을 전개해왔고 그에 대한 법률도 제정해 왔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 '지부진한 새만금 사업', '표류 중인 새만금',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이란 꼬리표에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

탄소산업 역시 새만금 사업 진행과 같은 '둘레길'을 걷지 않으려면 이후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송하진 전복도지사는 "탄소법이 시행되는 6개월여의 기간 동안 구

체적이고 실질적인 시행령 발굴에 집중하겠다"면서 "또한 탄소산업 관련 연구기관들도 시급히 '탄소산업진흥원' 등 국가기관으로 승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법=전복법'이라는 꼬리표를 빨리 떼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탄소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2조 8715억달러 수준으로 향후 2020년에는 7조 달러가 넘고 2030년에는 2020년의 2배를 넘는 규모로 불구하고 전복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전복법'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에 대해 도는 총 1조원 규모의 초대형산업인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부터 경북과 경쟁이 아닌 협조와 상생의 길로 나가 탄소산업이 향후 우리나라의 '100년 먹거리'가 될 산업이라는 인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번 탄소법 통과는 '3당 협치'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와 관련, 앞으로도 도가 발전하기 위해 '협치의 3당'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이번 탄소법 통과는 도와 도내 3당 정치권이 똘똘 뭉친 결과이다"면서 "앞으로도 협치의 행보를 펼쳐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박양섭 '설화백자 다기세트' 대상

도 공예품대전 시상식... 금상 백경동 '기와의이야기'

전북지역 우수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기반 조성을 위한 '제39회 전복도 공예품대전 시상식'이 지난 20일 전주한옥마을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6개 분야 115명의 출품작 616점에 대해 지난 13일 김운수 군산대학교 세라믹디자인학과 교수(심사위원장)를 비롯한 12인의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해 이번에 50명의 입상작품에 대해 시상했다.

대상은 도자공예분야에 출품한 박양섭씨의 '설화백자 다기세트', 금상은 백경동씨의 금속분야 '기와의이야기', 은상 2명은 안명수씨의 목·칠분야 '문자를 이용한 생활공예'와 이한빈씨의 도자분야 '추억의 난로', 동상은 이명택씨의 목·칠분야 '수고로움' 등 4명이 선정됐다.

또한 장려상은 이미정씨의 섬유분야 '들꽃이야기' 등 12명이 선정됐고, 특선은 차용현씨의 종이 분야 '나비들의 향연' 등 10명, 입선은 박효순씨의 도자분야 '상감청자 국화문 합' 등 20명이 차지했다.

입상자에게는 대상 200만원, 금상 100만원, 은상 각 70만원, 동상 각 50만원, 장려상 각 30만원, 특선에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등 협찬기관장 상장과 상금 각 30만원을, 입선작은 전북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의 상장을 받게 되며 제46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과 디자인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제품개발보조금을 지원받는 특전이 부여된다.

이날 공예품대전에 참석할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전라북도만의 것, 전라북도에서만 보고 만지고 구입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창조적인 공예품 개발을 해 나갈 때 전라북도 공예품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효용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전복 다문화 어울림축제 개최

전복도는 지난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김제 요촌 근린공원에서 '제9회 전라북도 다문화 어울림축제'를 펼쳤다.

전복도 다문화 어울림 축제는 도가 세계인의 날을 계기로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매년 1주간 개최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 및 센터종사자 등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 12명에 대한 도지사과 교육감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전통의상과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문화 체험부스와 어울림 예술제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영수 기자



지난 20일 김제 요촌 근린공원에서 열린 제9회 다문화 어울림 축제에 송하진 도지사와 이건설 김제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다문화 체험부스를 돌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중국 칭다오 '새만금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기업인 80여명 참석... 새만금개발청, '한중산업협력단지' 추진 전략 소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새만금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상실크로드의 거점도시인 칭다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칭다오화정그룹(기계제작 등) 등 기업인 8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의 비전과 추진전략, 각종 규제완화 및 투자혜

택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소개했다.

또한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취지를 살려, 전복도·한국농어촌공사·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신한은행 등과 함께 산업단지 추진현황, 한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방향, 한국투자 신청절차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주제 발표를 통해 기업의 관심을 유도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투자설명회는 중국측 중한산업협력단지이며 지난 4월 새만금개발청과 상호협력 합의서(MOU)를 체결한 산둥성 엔타이시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된 것"이라며 "산둥성 소재 기업들에게 새만금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고, 향후 투자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설명

회를 통해 확보된 기업정보 및 투자자 요청사항을 토대로 산업·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중국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칭다오시 투자환경설명회에 앞서 지난 17일, 중한산업협력단지 중 한 곳인 강소성 옌청시의 '중한산업원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를 홍보하고, 양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옌청시의 협조를 통해 열 달물류, 은보홀딩스, 옌청국제투자 등 옌청시 소재 유력기업 경영자들을 면담하고 새만금 투자를 적극 요청했다. /정영수 기자

7개 기관 지난해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국토부·통계청·지역난방공사·철도공사·국민연금공단 등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 7개 기관이 지난해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평균 점수는 73.55점으로 2014년(73.52점)에 비해 소폭 올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통계청 등 6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이,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국토부 ▲통계청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가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전년 비해 감사활동·실적이 탁월하게 향상된 특허청, 한전, 한국산업기술개발관리원, 건강보험공단 등 4곳은 발전기관에 뽑혔다. /박용주 기자

4월 아동학대신고 전년 동월 대비 45.5% 증가

지난 한 달 동안 아동학대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4월 한 달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152건으로 전년 동기(1480건) 대비 45.5%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29일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이전인 1~3월 평균 신고건수

(1833건) 보다 17.4%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은 장기결석 아동 등 일제조사와 아동학대 신고 집중홍보기간(4월) 운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교사, 의사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34.6%로 대책 발표 이전인 1~3월 평균(24.8%) 보다 9.8%포인트 늘어났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민을 위한 무료 특강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과 전북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원우회 공동으로 전주시민과 도민을 위한 무료 공개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삶의 즐거움과 명랑한 사회를 위하고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인성학 및 부부대화기법 특강으로 실시됩니다.



강사: 주선희

-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 KBS 사회교육원 강사
- 인성학박사 1호
- KBS 아침마당 패널

강의주제: 행복을 부르는 인성



강사: 김양욱

-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 대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KBS 아침마당(3회) 출연자

강의주제: 부부대화기법

○일시: 2016. 5. 25(수) 오후 7시 ○장소: 전주 시청 강당

○문의전화: 231-6669, 285-6676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주최: 한국스피치 & 리더십 컨설팅
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063-288-9700

www.jjmaeil.com